

**2017. 2**

**Vol. 38**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HOT ISSUE**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BIZ REPORT II**

동업 "좋은 게 좋다?"...분쟁으로 가는 지름길

**CEO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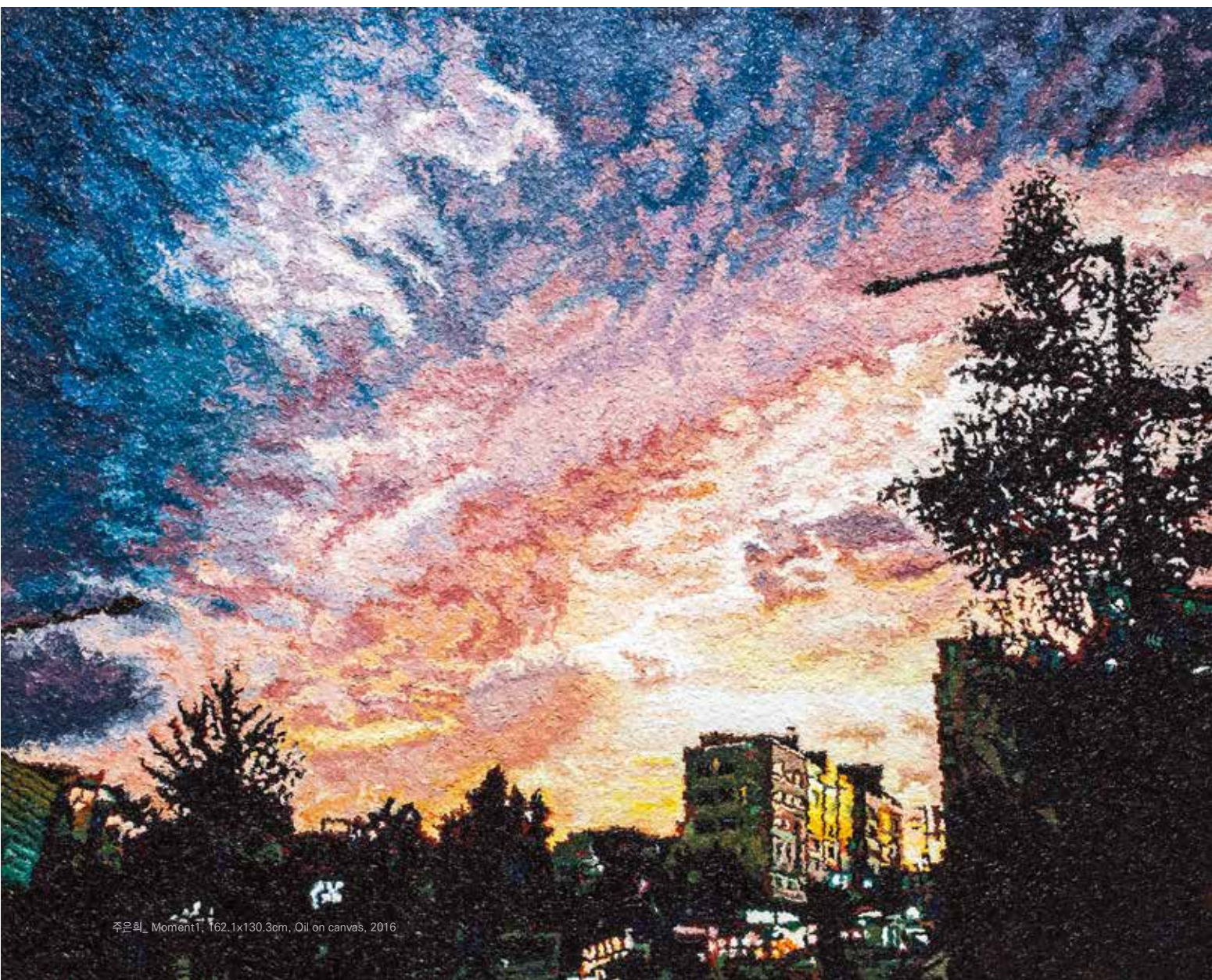
스마트약통 '메디알람S'...아이오틴(주) 서병현 대표

**주목 이 작가**

빛의 앙상블, 주은희 작가

**슈퍼 컬렉터**

미국 5대 컬렉터, 도날드&메라 루벨 부부



주은희\_ Moment1, 162,1x130.3cm, Oil on canvas, 2016



## Business

- 03 HOT ISSUE - 경영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 06 BIZ REPORT I - 노무      법정정년제 도입...인사제도 정비 서두르자
- 08 BIZ REPORT II - 법무      동업 "좋은 게 좋다?"...분쟁으로 가는 지름길
- 11 CEO INTERVIEW - 경영      스마트약통 '메디알람S'...아이오틴(주) 서병현 대표
- 14 FOCUS - 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사업초기 주식 명의신탁했다간 낭패보기 십상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38  
 발행처 (주)에스엠비넷 (주)예술만세  
 발행일 2017. 2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운, 박현진, 채민선, 이가영  
 김성화, 박홍기

아트콘텐츠 김현성, 안진국,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전화 02)525-7021 (주)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rt

- 17 주목 이 작가      빛의 양상불, 주은희 작가
- 22 슈퍼 컬렉터      미국 5대 컬렉터, 도널드&메라 루벨 부부
- 24 예술 별\*방      싯덩어리에서 돌아난 천사의 날개
- 26 관념미학 어워드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 28 한국화 읽기      작가의 심상을 담은 '선(線)' 사군자
- 30 예술가의 뮤즈      모딜리아니 생의 마지막 연인, 잔느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화 가능성 눈에 띄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중소·중견기업 기술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951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9억원 늘었다. 산업 전반에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설명회 자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루고,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가장 어려워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로 제한해 기업의 작성부담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반면 정해진 분량에 맞춰 기술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원대학교 나관식 교수는 “우수한 기술개발 계획과 실행력을 가지고도 사업계획서 작성이 서툴러 지원사업에서 낙방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며 “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의 단계를 거친다.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평가해야 할 내용이 빠져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증해 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과제 중 50% 내외를 대면평가 단계로 추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지방중소기업청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이 자격·역량을 갖췄는지 사실 조사를 한다. ▲대면평가는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한개 기업당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이때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각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기술성·사업성·창의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대면평가에서 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한다. 심의조정위원회는 추천대상 과제 중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사업별 예산한도 내에서 협약대상을 확정한다.

나관식 교수는 “사업계획서는 정부기관에 제출해 사업기간과 그 이후에도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다. 맞춤법이 틀리지 않아야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범위는 기초응용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이다. 또 양산단계의 기술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특히 올해 기술개발사업에서 강화된 부분은 사업성 평가다. 기술개발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으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고용증가나 수출이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5가지 키워드를 유념하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술수준 ▲사전준비성 ▲명확성 ▲근거확보 ▲유기적 연결 등 5가지 키워드를 유념해야 한다.

첫 번째는 기술수준이다. 국내최고 혹은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이어야 하고, 해당 기술개발로 생산된 제품이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거나 외국기업이 역설계(다른 회사의 상품을 분해해 그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는 것)할 만큼 현존하는 기술보다 탁월하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전준비성이다. 해당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는 식의 설명은 곤란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실험 결과, 시료(샘플)를 확보하고 분석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기술개발과 관련해 인력, 장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기술개발 상의 애로 혹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으면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사업성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애로점이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기술개발이나 연구내용, 목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달성도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서의 최종결론이고 가장중요한 부분이다. 나 교수는 “목표달성도 평가지표는 선정평가 뿐만 아니라 과제관리와 최종평가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며 “이 평가지표가 중요하지 몰랐다고 뒤늦게 하소연하는 지원자가 많다”고 밝혔다.

목표달성도 평가지표상의 최종 개발목표는 너무 안정적으로 설정해 기존 기술과 같은 수준이어도 안되고,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달성이 어려워도 안된다.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이 이 평가지표에 의구심을 가지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표를 정량화·수치화해야 한다.

네 번째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기술로 사업화할 시장의 규모와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설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전략기술로드맵(중기이코노미 ‘HIT! 기술이 미래다’ 기획물 참조) 등을 참고하면, 객관적인 시장동향과 기술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교수는 “간혹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는 ‘이 기술은 이 분야 세계최고 기술이고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있으며 내 말은 다 맞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구술을 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향후 사업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통틀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아주 높은 최종목표를 제시해놓고 기술개발 내용이나 방법은 수준이 낮거나, 사업비 내역에 제품양산을 위한 금형제작비 등이 들어있거나 하는 등 엉뚱한 내용이 있다면 곤란하다.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및 개발내용,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 최종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객관적 측정방법의 구성,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진 및 추진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돼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절차**

(자료:중소기업청)

추진 절차	수행 주체
공고과제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사회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신규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해당시)	관리기관
사업비정산 등 최종점검	위탁정산기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성능지표 <sup>1</sup>	단위	최종개발목표 <sup>2</sup>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 <sup>3</sup>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수 <sup>4</sup> (n≥5개)	시험규격 <sup>5</sup>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input type="checkbox"/> 시료수 5개 미만(n<5개)시 사유						
○						
<input type="checkbox"/> 측정결과와 증빙방법 제시						
○ 예)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 주2) 최종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 주4) 시료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한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하고, 공인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자료:중소기업청)

**Part I 은 '과제명', Part II는 '선정평가기준' 임을 유의**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사업계획서는 Part I 과 Part II로 나뉜다. Part I 은 팀의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Part II에는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결과 활용방법 등을 기술한다. 나 교수는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은 과제명만 보고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만큼 사업계획서 Part I 에서 과제명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평가위원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는 정보이고 첫인상이기 때문에 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과제명은 5개의 R&D속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5개의 R&D속성이란 ▲R&D 목적 ▲적용대상 ▲R&D 목표 ▲R&D 목표(기술) 수준 ▲R&D 단계 등을 말한다. 나 교수는 "5개의 R&D 속성 중 R&D 목표(기술) 수준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미래형', '초소형'과 같이 막연한 과제명이 아닌 '6나노미터', '1밀리미터'와 같이 계량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수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Part II 다. 사업계획서 Part II는 평가위원회 운영의 기초자료가 되고, 선정이후 과제관리 및 최종평가까지 전문기관과 중소기업 간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은 크게 창의·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세가지다. 이 평가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구성해야 한다. 창의·도전성은 기술개발 과제가 현재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술성 부분에서는 기술개발 목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업성에는 제품을 판매할 목표시장이 명확해야하고 지원기업이 해당시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기술개발을 했는데 시장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줄고 있는 시장이라면 지원받기 어렵다. 또 기술개발 후 양산·마케팅·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투자규모를 예측해 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업화 후 고용·수출·수입대체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한다. 나 교수는 "최근들어 과제 중복신청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에는 이전에 주관기관이나 참여기업 등으로 참여했거나 신청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가과제 참여 및 신청 내용을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산 등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했다면, 사업비 유용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IZart**

글.  
 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seekhoper@gmail.com

## 법정정년제 도입... 취업규칙 등 인사제도 정비 서두르자

‘만 60세 도달하는 날’ 정년...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활용도 검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확대돼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3세(남성 55세, 여성 51세)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 대졸 사무직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급증함에도 우리 산업 및 노동시장은 장년·고령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노동시장 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 급감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명으로 줄어들어, 부양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진다. 1명이 벌어서 1명 이상의 유아 또는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 내 노동시장을 장년·고령친화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인구절벽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 60세 이상 법정정년제 도입이다. 기업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년·고령인력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관련 인사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년제란 사업장내 취업규칙에서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 가능여부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제도다. 이러한 정년제도에 대해 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

년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효력만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협상 등을 통해 정년을 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정년 60세 이상 법정정년제가 도입됐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규정이 60세 미만인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

회사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60세 미만인 정년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많은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에서 회사내 정년규정(60세)은 있지만, 생산인력이 부족해 관행적으로 또는 회사의 묵인하에 정년 이후까



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사업장에서 법정정년제 도입을 이유로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처분을 하거나, 정년을 넘겨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를 정년 또는 고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대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60세 이상 정년'에서 '60세'란 '만 60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명시규정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대판 1973.6.12. 선고, 71다2669)와 행정해석(근기 68207-686, 94.4.25)의 입장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주민등록상의 생일)을 정년으로 본다.

입사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근로계약기간 중 변경돼 정

정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생년월 일을 기준으로 정년 도달일을 판단한다. 지방공무원인 A는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했고,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A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 일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는 정년을 1년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대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준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 정년폐지 및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정년을 폐지한 경우에는 1년간, 정년을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한 경우에는 1년간, 그리고 정년이 3년 이상 연장한 경우에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년퇴직자 재고용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6개월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지원한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재고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세 시대' 수명연장이 인간의 재량이 아닌 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을 비롯해 기업과 사회가 준비를 해야 한다. 정년 연장 또한 이러한 시대의 추세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 관련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BIZart



글.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kohyg75@hanmail.net



## 동업 “좋은 게 좋다?”…분쟁으로 가는 지름길

동업계약서 작성하고, 출자평가·의사결정·손익분배 반드시 정하라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좀 더 광범위 하게 쓰인다. 흔히 새로 시작하려는 신생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포장’하기 위해 쓰이는 유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동업’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먼저 꼬집어 낸 것은 스타트업에서 동업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혼자서 이런 흐름을 읽고 대처하며, 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신생기업, 스타트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일단 살아남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보면,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즉 신생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스타트업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붙이지 않아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동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신생회사의 자문을 할 때, 가장 주의해서 보는 것이 사업 지배구조와 동업의 틀이다. 동업구조를 잘 만들면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규율이 없으면 동업 어렵다...동업자 관계 설정하기

최근에 신생 스타트업의 회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했다. 대표는 두명인데, 예전 직장에서 팀장과 팀원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팀원이었던 대표는 평등관계라고 생각하고, 팀장이었던 대표는 상하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가족 같은 조직문화가 떠오른다. 소수의 구성원이 같이하는 초기 단계의 사업이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편안한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서로에게 함부로 하거나, 위계질서가 무너져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유로운 조직문화는 분명, 구성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율과 통제가 없으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스타트업에서도 팀원이었던 대표는 자신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는 예전 상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상사이기는 했지만, 지금 너무 자신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불만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쌓여 가면 결국 동업이 깨지고, 나아가 회사가 깨지는 원인이 된다. 회사의 조직은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혹자는 이를 ‘스모츠 팀’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신속·정확한 결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회사의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CEO에게 하면, 대부분의 대표들은 “어떻게 민망하게 그런 것들을 정하나?”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경험상 동업은 동업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설정됐는가, 즉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분배돼 있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도 동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각자의 포지션을 정한 이후에, 가능하면 이를 동업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면, 업무규칙이나 회사내부 규율 등을 만들어 문서화해야 한다.

### 사업체 수만큼 형태도 많다...동업의 형태

우리 법은 동업의 유형을 동업자들의 출자형태와 책임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다. 민법상의 조합계약,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과 합자조합계약,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동업계약은 동업하는 사업체의 수만큼 형태가 많다. 적어도 대외관계가 아닌 대내관계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가 동업의 형태를 결정한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동업계약서가 없어서 발생한다. “왜 동업계약서를 안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동료끼리 계약서 쓰기가 쑥스러웠다”고 답한다. “그냥 믿고 했다”라는 말은 사업에서 치명적인 독이다. 계약서를 쓰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든 문자든 어떻게든 동업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 동업계약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계약서의 작성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결정하고 동업을 시작해야 한다.

#### ① 출자

사업체에 돈이 들어올 때는 빌린 것인가 아니면 투자받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동업자들이 사업체에 투자금을 낸다는 것을 전제하자. 출자는 재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경영능력, 특별한 기술,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노무로 출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출자할 재산과 노무의 종류·수량, 출자시기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와 출자할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한다. 표로 정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지분의 액수로 정해진다. 처음에 지분을 잘못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 ② 경영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방법이다. 동업자들 간에 만장일치로 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체의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사업체에 독이 된다.

사업의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모든 내용,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업자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 업무집행의 단계를 정하고, 모든 동업자가 참여해야 하는 업무집행, 대표자 혹은 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집행 등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잘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를 맡는 것이 좋다.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해야 할 경우도 있다.

#### ③ 손익

수익과 손해의 분배시기, 언제 수익 배당을 하고, 손해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메울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손익 분배와 관련한 충돌은 보통 회사가 너무 잘되던지 너무 안 되는 경우에 생긴다. 초기 스타트업은 처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잘되면 수익을 나누자"라는 식으로 대충 약정을 하거나, 이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를 회사에 얼마나 유보해둘 것인지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인지, 분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 약 먹을 시간 알려주는 ‘약통’ 아내 위해 만들다

1 매일 시간맞춰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스마트약통을 개발했다는 아이오틴(주) 서병현 대표(사진:중기이코노미)

### IoT 헬스케어 제품 ‘메디알람S’ ...아이오틴(주) 서병현 대표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얘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아이오틴(주) 서병현 대표는 몇 해 전 심장수술을 하고 혈전용해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약통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일 때문에 곁에서 약을 챙겨줄 수 없었기에 휴대폰 알람도 맞춰주고 플라스틱 분할약통에 약을 담아 주기도 했지만, 아내는 종종 약 먹는 일을 잊어버리곤 했다. 서 대표는 아내를 위해 ‘곁에서 챙겨주는 약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약 먹을 시간 등을 알려주는 ‘메디알람S’는 그렇게 태어났다.

메디알람S는 1일 3회분 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플리케이션과 약통에서 알람이 울린다. 이 시간에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되면, 30분 후 다시 알려준다. 이때 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 혼자 생활하는 환자나 노인환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메디알람 어플리케이션에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한 국내 시판약품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먹는 약의 성능과 부작용,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전의 QR코드를 찍어 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알람S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이 집약된 헬스케어 제품이다.





2(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약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는 '메디알람S', '메디알람Lite' 제품과 어플리케이션. (사진:중기이코노미)

3(아래) 서병현 대표가 초기에 개발한 스마트약통은 30cm 크기로 휴대하기 불편했다. 여섯 번에 걸친 디자인 변경 끝에 현재의 모습이 됐다.(사진:중기이코노미)

**아내에게 필요한 약통...환자부터 젊은 층까지 필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엔지니어와 연구원 기획업무를 하며 18년간 직장생활을 해온 그였다. 전자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지만, 서 대표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검색하며 방법을 찾아갔다. 당시 서 대표는 직장을 나와 개인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요일별로 약을 나눠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약통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었죠. 하지만 차광, 방습, 기밀, 물리적 충격 등 약통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정확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약통은 마감도 허술하고 조잡하더군요. 더군다나 약통 제조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필요한 약통을 만들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장조사를 하다보니 이러한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흔히 ‘밥 반, 약 반’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노인층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젊은층까지 시장은 열려 있었다. 서 대표는 약통관련 특허검색부터 시작해 통신인증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사양들을 제품에 넣었다.

**메디알람S 어플리케이션 기능**

**거듭된 시행착오...3년의 시간과 아파트 두채 값 투자**

“현재 디자인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리고 양산하기까지 또 1년이 걸렸죠. 그렇게 지난해 10월 정식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 대표가 만든 스마트약통은 30cm 가까이 되는 크기의 제품이었다. 무선통신에 대한 인증을 받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도록 만들었지만 휴대하기가 불편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6번에 걸쳐 디자인을 변경하고, 회로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기술개발을 거듭했다. 시제품을 만들고 난 후에는 프로슈머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 프로슈머는 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산과 판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아이오티는 메디알람S 외에도 하루에 한번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주일분 약통 ‘메디알람Lite’도 시판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제품 ‘메디알람U’를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약통에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을 적용해 당뇨 환자 등이 간편하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품도 가천대학교와 함께 개발 중이다.

“사업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도 3년의 시간과 아파트 두채 값의 개발비용이 들었죠. 개발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 들어 자금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세상은 오픈북 테스트”...직원·사회가 원하는 기업 만든다

전자통신 분야에서 문외한이었던 서 대표가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한 촉망받는 스타트업이 되기까지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발품을 판 그의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오픈북 테스트죠. 정답이 없는 시험지를 앞에 두고 다양한 분야의 ‘세상 책’을 섭렵해야 성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관련기관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꼼꼼함과 끈기는 반드시 갖춰야 할 사업가의 기본입니다.”

서 대표는 2014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스쿨을 수료한 후, 2015년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사업공간과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인천지역 엔젤투자회사인 미추홀엔젤클럽으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최근에는 거래은행 두 곳에서 VIP선물용으로 메디알람s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구매계약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오티는 중국시장에 메디알람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첫걸음도 뒀다. 지난해 중국 박람회에 참가한 후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빠르면 올 하반기 중국시장을 필두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 개발전문가 등 5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서 대표는 필요자금을 제때 조달하고, 회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오랜기간 큰 조직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다 혼자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니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그는 회사도 알리고, 판매도 해야 하고..., 대표가 멀티플레이어로 활동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

“투자자와 지원기관에 회사와 제품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더군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도 오랜시간 쓰고, 고치기를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갈 것입니다.”

그는 사물인터넷에 전문화된 젊은 기업을 뜻하는 아이오티(IOTEEN=IOT+TEEN)이라는 사명처럼 첨단기술과 함께 가는 젊은 기업이 되기를 꿈꾼다. 구글의 직장문화가 요즘 젊은 직원들이 원하는 기업문화의 모델인 것처럼, 아이오티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 또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를 그는 바랐다. **BIZart**

글.  
블루밍세무컨설팅 손민호 세무사/경영지도사  
consult5699@gmail.com

# 상속, 혼인합가...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투기목적이 아닌 1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입법취지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한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그리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 포함).

다만, 부부간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로 보는데 ①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종합·퇴직·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다.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과 건물정착면적에 10배(도시지역 내일 경우 5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만약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주택여부를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연면적이 주택외의 연면적보다 초과하면 전부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





나의 매매단위로 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이 반드시 1주택일 경우에만 비과세할 경우, 거래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 특성을 감안하면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2주택의 경우도 비과세 특례가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경우, 상속받은 경우, 동거 분양, 혼인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와 농어촌 주택·지정문화재 주택 이외에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정한 요건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취득요건과 양도요건을 완화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비과세 한다. 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한다.

비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또는 비과세하지 않아도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①미등기된 주택과 양도 ②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④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다.

양도실지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면적, 금액, 시설기준을 두지 않고 가액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먼저 금액을 안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지분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 소유지분을 합해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총 양도차익×공유지분율×9억원 초과 비율’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상가가 포함된 비과세주택의 양도소득세는 ①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검토 ②주택부분의 연면적(부속시설 면적 포함)과 상가부분의 연면적(부속시설 면적 포함) 크기 검토 ③주택, 상가의 부수토지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초과 검토 ④양도가액 안분과 초과면적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⑤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 안분 후 주택과 그 양도가액의 고가주택 여부 판정의 순서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 정착면적, 주택 부수토지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 연면적이 과세 상가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http://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mailto:junggi@junggi.co.kr)

**사업초기 주식 명의신탁했다간 낭패보기 심상**

스타트업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지분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주식의 일부를 친구나 친척에게 명의신탁해 뒀다가 회수하려고 하자, 주식의 명의자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주주가 사망해 주식이 이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주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납품 6개월 지나 “하자 있다”며 반값 납품 요구**

하도급법 제1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납품한 물건에 대해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급작스럽게 대금을 절반 이하로 감액해 납품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을 어긴 행위다.

**선행공정 늦어져 공사지연 “근거자료 확보를”**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공정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로 볼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해까지 배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를 적기에 진행할 수 없는 이유(선행공정 지연 등)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알려 둘 필요가 있다.

**거래 유지 중 갑작스런 발주 중단 하도급법 위반**

이미 제작한 물품에 대해 원사업자가 급작스럽게 수령을 취소하거나 거절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서를 받아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주서는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만약 보관하고 있는 발주서가 없다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관세혜택 받는다**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대상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야 할 경우 사본만 제출해도 고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올해부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시 측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34만곳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관련,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 공정 등을 조사한다.

**예비창업부터 초기기업까지 단계별 자금조달**

사업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정할 만큼 중요하다. 신용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대로, 창업초기 기업이나 성장기 기업은 또 그들대로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영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이를 알아보고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전략 | 자료: 중소기업청 의

- 예비창업자**
  - o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 o 창업기업지원자금
  - o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우대 보증
  - o 소공인 특화자금
  - o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 창업초기(1~3년)**
  - o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o 재도약 지원자금
  - o 신성장 기반자금
  - o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 창업성장(3~7년)**
  - o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o 재도약 지원자금
  - o 신성장 기반자금
  - o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직원수 속이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지원받으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따르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인력 등 참여요건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개발된 제품·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작성해 사업비를 부정사용하면, 정부지원금을 환수 당하고 향후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기정원은 참여기간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조치 외에 부정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형법·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기술개발지원사업비 부정이용 사례 |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참여요건 허위 작성
- 기개발제품 신규개발처럼 속여 작성
- 참여인력에게 사업비 미지급
- 비참여인력에게 사업비 지급
- 동일 증빙서류 여러 과제에 중복 사용
- 장비·재료비 단가 부풀려 사업비 신청
- 수행기관과 대표가 같은 기업간의 거래
- 사업비를 제품양산에 사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번호 오기 관세추징**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중요하다. 국내 수입자가 사용한 EU 인증수출자 번호가 사후검증에서 오류로 판명돼,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에 따라 6000유로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EU 28개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에는 EU 수출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http://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1 Moment 2, 33.3x24.2cm, Oil on canvas, 2016

## 빛의 앙상블

주은희 작가





2	3
4	

2 Moment 4, 53x53cm, Oil on canvas, 2016

3 The light of daily life12, 20x20cm, Oil on canvas, 2016

4 The light of daily life7, 45.5x38.cm, Oil on canvas, 2016

나의 작업 속에서 빛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빛깔을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 사람들이 마음 속 안에 품고 있는 희망과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하루 중에서 기억되는 한 순간의 빛을 형상화 한다. 새벽의 어둠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상쾌한 빛이나 오후의 나른한 빛 그리고 해질녘 어둠이 스며드는 도시 속의 수많은 빛들이 그것들이다. 이 잠깐의 순간은 나에게 일상의 첫바퀴를 밟고 '그 빛을 잘 찾아서 따라가고 있는 걸까? 혹은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작업의 시작점 이라고 할 수 있다.





5 Tres belle, Oil on canvas, 162x130cm, 2015

붓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한 페인팅(finger painting)은 이러한 빛의 느낌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어준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기법은 외곽선을 흐트러지게 하며 직선에서 곡선이 되기도 하고 손의 힘과 속도 등에 따라서 매번 다른 선과 면이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물의 외곽선은 배경과 섞이며 마치 초점 흐린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빛의 느낌이 그러한 것 같다. 경계성 없는 모호함과 애매함 그리고 밝은 테두리는 존재하지만 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현대인들의 바쁨과 녹록하지 않은 못한 현실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오히려 희망을 저버리거나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온전한 나로서의 빛보다는 누구의 엄마, 딸, 아내... 등으로서의 빛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하루의 고단함에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나는 작업을 통해 빛을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가로등과 자동차의 후미등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빛을 찾을 수 있는 한 순간을 하루 중 잠시라도 느껴보길 기대해본다.

-작가 노트 중-





6 The light of daily life1, Oil on canvas, 116.7x80cm, 2015(좌)

7 Moment 3, 33.3x24.2cm, Oil on canvas, 2016(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의 겨울. 아내와 함께 파리에 갔었다.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파리 시내의 미술관들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그리고 흡사 유인원의 이름 같기도 한 오랑주리.

가본 이는 물론이거니와 가보지 않은 이들도 풍문을 들어서 알리라. 위의 이름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방대한 가치를 지녔는가를. 패기만만하던 20대, 여자 친구와 방문했던 파리(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아내는 아니다)를 17년 만에 다시 찾은 40대의 나. 그리고 20대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지없이 40대의 나 역시 그 엄청난 미술품들에 압도당했다. 시간을 뛰어 넘어 나를 압도케 한 그것은 그 어떤 회화도 조형물도 유물도 아니었으며, 그것들이 지닌 예술적, 역사적, 문화인류학적 가치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방대한 미술품의 양이었다.

‘아~ 뭐가 이렇게 많냐?’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은 두 명의 장항준에게,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그렇게 며칠째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기만 하던 어느 날. 그로키 상태의 나를 벅차면서도 묘한 감흥에 빠져 들게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오랑주리 미술관을 나서던 내 앞에 펼쳐진 것들. 금방이라도 세느강을 범람시킬 듯 퍼붓던 소나기가 그친 해질녘의 보랏빛 하늘, 먼지 수북한 상자에서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꺼내진 보석처럼 빛나는 가로등 불빛, 크고 작은 자동차들의 불품없는 뒤태를 매혹적으로 뒤바꾼 새빨갇간 후미등.

이 모든 것들이 물기를 잔뜩 머금은 파리를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게 빛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세계 최고의 미술작품들을 제쳐두고, 당시 파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억조차 없는 일상의 풍경에 매료되고 만 것이다.

2015년 여름. 미술에 문외한인 내가 주은희 작가의 작품들을 보며 문득 떠오른 것은 그날 오랑주리 앞에서 본 풍경이었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하고, 희미하면서도 선명하며,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광선의 양상불. 디지털 속도 경쟁의 능선에 주저앉은 채, 가쁜 숨을 고르는 우리에게 그 빛의 양상불이 주는 것은 소박한 위안과 희망이리라. 그 위안과 희망의 온기를 손가락 끝에 담아, 캔버스에 전하는 주은희 작가.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는 도시의 불빛이... 난 아주 마음에 든다. 아주. -장항준 영화감독- **BIZart**





8 작업하는 과정

빛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한 페인팅(finger painting)은  
 밝은 테두리는 있지만  
 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빛의 모호함의 표현을 극대화시킨다.

9 A strange serenity10, Oil on canvas, 162x130cm, 2012



**주은희 Joo, Eun Hee**

2002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와 졸업  
 2007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서양화와 졸업  
 2012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출강

개인전

2016 제7회 MOMENT전 (갤러리 아트유저)  
 2015 제6회 '일상의 빛, 도시'전 (가나아트 스페이스)  
 2012 제5회 A Strange Serenity 전 (화봉 갤러리)  
 2009 제4회 신진작가 초대 개인전 (갤러리 도울)  
 2008 제3회 선발 신진작가 개인전(갤러리 쿤스트라움)  
 2007 제2회 갤러리 숲 초대개인전 '낯설게 하기'(갤러리 숲)  
 제1회 '낯설게 하기'(동덕아트 갤러리)

단체전

2016 아트 쇼핑전(갤러리 토스트)  
 AFFORDABLE ART FAIR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Emerging Artist Contest (SOAF, 코엑스)  
 The Illusion of Mind (KIMI ART 갤러리)  
 화랑미술제 (코엑스, 갤러리 박영)  
 201 핑크아트페어(PAFS) (JW메리엇 호텔)  
 'The SHIFT' 전 (갤러리 박영)  
 2015 갤러리박영과 빅이슈코리아의 특별 기획전 'BIG FAMILY 100'(갤러리 박영)  
 '和. 華. 그리고 畫' 展(송암 아트라운)  
 2013 프린트베이커리 작품 원화전(롯데백화점 광복점)  
 Day by Day전 서울아산병원  
 2012 ART OF INTERIOR(현대백화점 토파즈홀)  
 미술대학 교수교류전 (공평아트센터)  
 KCAF (예술의전당)  
 best\_mate전 (비엔빛갤러리)  
 2011 유어 인천전(인천아트플랫폼)  
 작은것의 미학전(갤러리 아트유저)  
 서울옥션 갤러리전(호림아트센터)  
 매일경제 Show me the M전 (더페이지 갤러리)  
 Freshness of Vision전 (갤러리 아트힐)  
 Spring Story 기획전 (박영덕 화랑)  
 New Wave Artist 기획 공모전 (갤러리 두루)  
 KCAF 공모 당선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생활의 발견전 (부평아트센터)  
 2010 신진 작가 공모 2인전 (사비니 갤러리)  
 신진작가 공모전 '새로운 도약전'(청작 화랑)  
 세가지 색 이야기(갤러리 엑스포)  
 신진작가 기획전(작은공간 나무)  
 2009 개관기념 신진작가 초대전(갤러리징)  
 동원전(서울 보증보험)  
 2008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학생문화센터)  
 Korea Young Women's Contemporary Art(중국, Raab gallery)  
 항주중국미술학원 교류전(중국, 항주미술학원)  
 Hello Sapporo-일본 교류전(일본, 삿포로 Continental gallery)  
 2007 동덕여자대학교 동문전 '꽃과 자연전' (동덕아트 갤러리)  
 러시아, 한국미술 HUBART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레핀예술대 미술관)  
 선발 신진작가 그룹전 (갤러리 쿤스트라움)  
 대한민국 남부현대 미술제 초대전(울산문화예술회관)  
 '인사동 사람들' 전 (라메르갤러리)  
 중국 교류 초대전 (북경, 공화랑)  
 2006 경향미술대전 입선 (경향갤러리)  
 관악미술대전 특선 (안양예술회관)  
 21C ART Festival 초대전 (단원예술회관)  
 목화전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 (세종문화 회관)  
 KOREA CONTEMPORARY ART (네덜란드, Covalenco gallery)  
 대한민국 청년 작가 조망전 (세종문화 회관)

글.  
김현성 아트브런치 대표  
artmanse21@naver.com



1 \_\_ 루벨 부부(출처 hyperallergic.com)

## 미국 5대 컬렉터, 도널드&메라 루벨 부부

컬렉터는 시대를 뛰어넘는 심미안으로 예술계의 발전을 견인한다. 이번호에 소개할 사람은 자신들만의 컬렉션 원칙을 가지고 50여 년 동안 작품을 수집해 온 루벨 부부다. 슈퍼리치에 속하지도 않은 루벨 부부가 미국 5대 컬렉터의 반열에 오른 과정에 많은 미술애호가들은 열광한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적인 컬렉션을 인내심이라는 단어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부를 축적해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늘 흥미롭다.

2 \_\_ Rubell Family Collection 뮤지엄 전경(출처 rfc.museum)





**25달러로 첫 컬렉션 시작**

뉴욕 브루클린에서 프로 테니스 선수의 아들로 태어난 도날드 루벨은 코넬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의대에 진학해 부인과 의사를 지냈다. 그 후 20대 초반에 교사 생활을 갖 시작한 메라와 결혼을 한다. 메라는 10대 초반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집안의 가난한 딸이었다. 그들은 결혼과 동시에 컬렉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도날드 루벨은 4살 때부터 병뚜껑을 수집했고 여섯 살 때는 이미 자신만의 컬렉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자신은 컬렉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 같으며 한 말이다. 어릴 적부터 형성된 수집 습관은 결혼생활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

신혼 시절 25달러로 시작한 이들의 첫 컬렉션의 과정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월급의 일부로 그림을 샀던 것인데 좋은 그림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수십 군데의 갤러리와 작가 작업실을 직접 발로 찾아다녔다. 꼭 작품이 갖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몇 개월씩 비용을 나누어내면서까지 작품을 구입했다. 세상에 컬렉터들의 패턴은 다양하지만 이들 부부만큼 발품을 파는 애호가는 드물다. 루벨 부부는 지금도 잠재력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방문한 스튜디오가 수천 곳을 넘는다고 한다. 2012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 행사장을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이들은 큐레이터의 설명을 유심히 듣고 한국의 젊은 작가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겼다.

“컬렉션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물론 작가의 인격과 예술에 대한 철학이 검증된 후여야 한다” 루벨 부부의 그림 수집 원칙이다. 그들이 수천 곳에 달하는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던 것도 이 원칙 때문.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초창기에 발품을 팔며 구입했던 이들의 컬렉션 리스트다.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아, 신디 셔먼, 마우리치오, 카텔란 같은 작가들이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무명이었던 이 작가들의 작품은 현재 수십억 달러로 거래된다. 천운을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미친 듯이 작가와 작품들을 보러 다니며 생긴 안목 때문일까? 반백년이 흐른 지금, 루벨 부부의 컬렉션은 자그마치 5000여점에 이르는 데 작가 수만 무려 800여명이다.



3. RFC museum 전시 모습(출처 rfc.museum)(좌)  
 4. Rubell Family Collection 설치 작품(출처 rfc.museum)(우)

**컬렉션 스타일은 컨템포러리 아트**

루벨 부부의 첫 컬렉션은 팝아티스트인 키스 해링의 작품이었다. 처음엔 한 점을 구매했지만 아트 달러의 조연으로 전시 출품작 전체를 사들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물론 저렴한 작품값도 이들의 결정을 한 몫 거들었다. 지금은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키스 해링의 초기작들은 에너지 넘치는 재기발랄한 작품들이다. 1990년 에이즈로 사망할 때까지 키스 해링에 대한 후원은 계속됐다.

루벨 부부는 그들만의 컬렉션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수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명작가의 작품보다 신인작가들의 새로운 시선이 표현된 작품에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점이다. 두 가지 기준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작가들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먼 개성있는 작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 이들의 컬렉션에 설치 작품이나 미디어아트가 많은 이유도 이런 컬렉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장이나 아트페어 등에서 새로운 낯선 작품들을 발견했을 때 스릴 감까지 느낀다고 하니 현대미술 컬렉터로서의 비범한 눈과 결단력 있는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마이애미에 RFC 뮤지엄 설립**

루벨 부부의 개인 컬렉션은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평론가들마저 그들의 안목과 통찰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 또 이들에게 발굴된 작가들이 대부분 유명작가로 성장하고 있으니 미술계의 마이더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갤러리와 작가들은 이들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한다.

루벨 부부의 영향력이 단지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1993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마약과 불법무기를 압수해 보관하던 낡은 창고를 매입해 RFC(RUBELL Family Collection)란 이름의 뮤지엄을 설립한다. 최근에는 그들의 아들인 제이슨과 함께 ‘Contemporary Arts Foundation’을 설립하고 대형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10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아트바젤 마이애미’를 출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덕분에 마약사범과 불법무기범죄자들이 들끓었던 마이애미 해안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휴양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노령임에도 좋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작가의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루벨 부부의 컬렉션은 지금도 확장 중이다. 이제 막 컬렉션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반백년의 작품 소장 경험을 가진 부부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예술에 다가가라.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라. 낯선 작품을 눈여겨보라. 좋은 작품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BIZart



글.  
안진국  
미술평론가,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말과활』 편집위원  
critic.levahn@gmail.com

# 셋덩어리에서 돌아난 천사의 날개

영국의 북동부에 있는 뉴캐슬New Castle과 더럼Durham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고속도로 초입의 언덕에는 늘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때로는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다. 그곳에 강철 날개를 가진 천사가 신비롭게 서 있다. 무려 200톤이 넘는 무게에, 그 키가 20m이며, 양쪽 날개 길이가 50m에 달하는 거대한 천사이다. 그 장엄한 자태는 경외심마저 불러온다. 바로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1998). 국내 언론에서도 '탄광촌을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한 공공미술 작품'이라며 자주 언급되었던 그 천사, <북방의 천사>말이다.

1. 안토니 곰리, <북방의 천사>, 1998, 강철, 높이 20m x 폭 54m, 게이츠헤드(영국)

## 희망의 전령사가 된 강철 천사

20만 명 정도가 사는 영국의 소도시 게이츠헤드Gateshead에 세워진 <북방의 천사>는 지역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자랑이기도 하다. 천사가 있는 게이츠헤드는 19세기까지 탄광산업으로 부유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자유경제 원리의 시장경제 정책을 저돌적으로 추진했던 마거릿 대처의 영국 경제 정책(대처리즘Thatcherism)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광산을 폐쇄했고, 그 때문에 게이츠헤드의 지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경제 침체의 수렁을 맴돌던 게이츠헤드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준 전령사는 바로 <북방의 천사>였다.

이 천사는 영국인들이 선정한 10대 문화 아이콘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영국 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세계 곳곳에서 40만 명 이상이 찾은 정도로 세계인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미술작품이다. 이 때문에 <북방의 천사>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게이츠헤드 주인이 처음부터 천사를 반겼던 것은 아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은 그 존재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게이츠헤드 시 당국은 야심만만한 전대미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94년 안토니 곰리Anthony Gormley가 이 프로젝트의 계획안으로 강철 날개를 가진 거대한 천사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작은 소도시의 언덕에 초대형 셋덩어리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것을 과연 지역 주민이 반길 수 있었겠는가.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셋덩어리에 16억 원의 예산을 퍼붓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거대하고 높은 셋덩어리 때문에 TV 전파 송수신의 어려움, 비행기 운항의 지장, 그린 벨트의 손상 등을 우려했다. 심지어 고속도로 초입이라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깜짝 놀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신의 분노로 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등 억지 의견도 쏟아냈다. 그 당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의 천사>는 세워졌고, 이제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시 당국이 불도저식의 밀어붙이기를 했던 것일까?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는 좋았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다. 시 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주민을 설득했다. 외부 자금을 유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모든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작가인 안토니 곰리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지역학교의 교장, 미술교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등을 열어 긍정적 의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작품 모형과 드로잉 전시 등의 홍보행사도 열심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 당국과 작가의 노력은 주민의 마음속에 놓여있던 흥축한 셋덩어리에서 서서히 천사의 날개를 뚫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개가 자라나 미래의 희망을 향해 비상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기에 <북방의 천사>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향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품은 역사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채움과 비움, 존재와 상실의 조각상**

〈북방의 천사〉의 탄생에는 지역 주민의 변화와 기대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주역은 바로 안토니 곰리이다. 그가 진두지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2008년 '영국 예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텔레그래프Telegraph 발표)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한 작가이다. 곰리는 〈북방의 천사〉뿐만 아니라, 영국 리버풀 근교의 크로스비Crosby 해변에 실물 크기(189cm) 인체조각상 100개를 설치해 거대한 자연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묵시록적으로 보연준 〈또 다른 장소Another Place〉(2005-2006)나, 실물 크기 인체조각상을 런던(2007)과 뉴욕(2010) 빌딩들의 옥상과 공원, 거리 곳곳에 설치해 마치 파수꾼들이 도시를 지키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사건의 지평Event Horizon〉 등과 같은 작품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곰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특정 장소의 환경과 역사성을 작품의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로 작품의 장소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곰리 작업의 위대함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 놓인 작품의 장소성보다는 작품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있다. 그는 전통 조각에서 평가절하되었던 '라이브 캐스트Live Cast'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작품 자체에 깊은 철학적 성찰과 사유를 부여했다. 라이브 캐스트 방식이란 살아 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직접 본을 뜨는 방식으로,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댕도 이미 시도했을 정도로 전혀 낯선 작업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조각가들은 작가가 작품을 직접 빚고 다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곰리는 자기 자신을 라이브 캐스트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외면당했던 이 작업 방식에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랩으로 감싼 후, 그 위에 젖은 석고를 바르고 그것이 마를 때까지 폐쇄적 틀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단지 몇 개의 구멍을 통해서만 겨우 숨 쉬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석고가 마르면 틀을 잘라내 신체에서 떼어내고 이 신체의 본에 다시 물질을 채워 조각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라이브 캐스트 과정은 작가가 가위 놀림과 같은 행동의 억압, 시야가 차단된 암흑의 두려움, 폐소공포증, 자폐적 상황 등을 통해 유사 죽음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신체의 형상이 그대로 굳어져 신체의 본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중층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마침내 작가가 폐쇄된 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유사 죽음이 각인된 '신체의 부재'와 그 속에 '잠재된 형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로써 채움과 비움과 다시 채움, 현존과 부재와 잠재성의 개념을 작품이 동시에 수렴하며, 물질적 신체와 비물질적 경험의 교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곰리의 작업 개념은 인도 철학과 불교의 영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유서 깊은 가톨릭 학교에서 서양식 정통 교육을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류학과 미술사를 공부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만난 어느 영적 지도자의 영향으로 인도철학과 불교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고, 이후 골드스미스 칼리지와 런던대학 스테이드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수학하여 조각의 양식으로 명상과 사색, 해탈 등의 동양 철학적 성찰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의 궤적은 그의 작업이 단순히 인체 형상을 조각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와 상실을, 삶과 죽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곰리는 라이브 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떠내는 과정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은 끝나고 보상을 받듯 새로운 자신의 형상이 그를 찾아온다. 이러한 과정은 〈북방의 천사〉가 완성되기까지 거쳐 왔던 시간을 떠오르게 한다. 〈북방의 천사〉에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던 암흑기는 곰리에게는 라이브 캐스트에서 겪었던 인고의 시간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을 이겨냈듯이 곰리는 그 암흑기를 꾸준한 설득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북방의 천사〉가 마침내 세상 속으로 비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의 경험과 정신의 승리 때문인 줄도 모르겠다. 우리가 곰리의 작품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비물질적인 그의 경험과 정신이 작품 속에 깊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작품 이상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BIZart**



1,2,5 안토니 곰리, 〈북방의 천사〉, 1998, 강철, 높이 20m x 폭 54m, 게이츠헤드(영국) 출처 : ©HARMEET MARWAHA(1),http://www.bruceallinson.com(2), ©PA/Owen Humphreys(5)

3 안토니 곰리, 〈철인〉, 2005, 강철, 빅토리아 광장(버밍햄, 영국) 출처 : Wikimedia Commons

4 안토니 곰리, 〈또 다른 장소〉, 1997, 철, 100개의 등신상, 각 높이 189cm, 크로스비 해변(리버풀 인근) ©Chris Howells

6 안토니 곰리, 〈사건의 지평〉, 2007, 철, 파이버글라스 등신상 27개와 철제 등신상 4개, 템스 강 남쪽 강변(런던) ©JAMES HARRISON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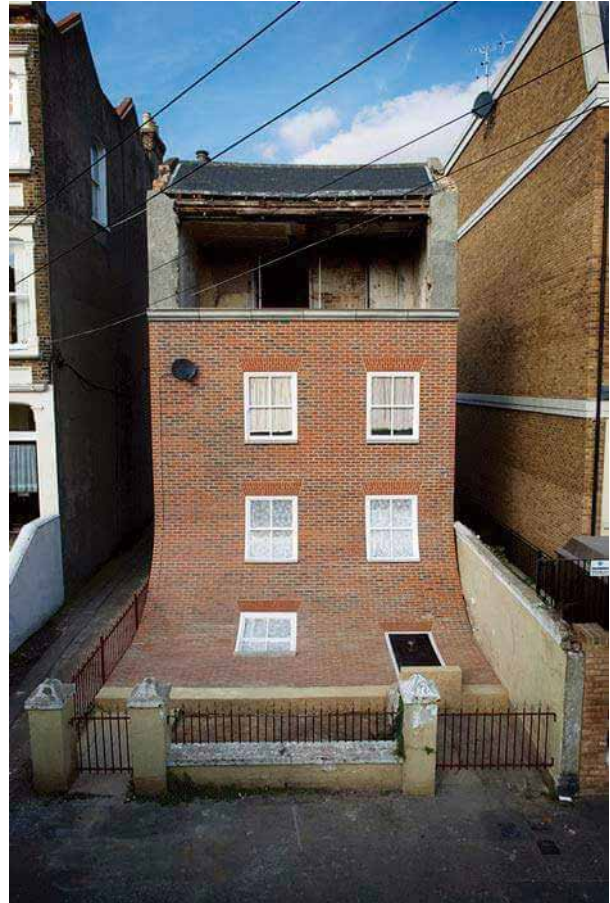
글.  
 김정휘 미술평론가, 관념미학어워드 집행위원장  
 himanyoman@naver.com

#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 관념미학 어워드 선정기준 ]**

관념미는 작가의 관의 독창성의 수준이 높거나 상식으로부터 진일보할수록 발생하는 지적인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관념미의 발현경로는 조형이론,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창적 조형이론이 존재하거나 관념의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는 경우(최상)
2.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상)
3.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나(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한 경우를 의미함) 2번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중)
4.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며 개성은 있으나 독창적 조형관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하)



- 1 Alex chinneck 작품
- 2 Henrique oliveira 작품
- 3 Santiago villanueva 작품
- 4 Jan vormann 작품

1

**제33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Alex chinneck**

영국 출생, Chelsea College of Arts, Royal British society of Sculptors

Alex chinneck 작가는 건물의 한 면을 분리하여 흘러내리게 한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3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철거 직전으로 보이는 건물을 오브제로 선택하여 앞면을 그대로 분리한 뒤 이를 바닥으로 흘러내리도록 설치하고 있다.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발판으로 남다른 조형관념을 드러내고자 하는바는 고든 마타클라크의 아나키텍처와 궤를 같이 하지만 그는 주로 쪼개거나 구멍을 뚫고 부분적 덩어리로 해체함으로써 건물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접근을 보여준 반면 Alex chinneck는 건축의 일부를 해체하지만 이를 얇게 분리시켜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세부적인 접근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조형관념을 보여주고 있기에 작품에 '관념미'를 확보하고 있다.





2



3



4

#### 제34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Henrique oliveira

브라질 출생, The university of Sao paulo

Henrique oliveira 작가는 천장과 바닥을 생동적으로 연결짓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4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천장으로부터 나무줄기를 연상케 하는 두터운 형태가 나선형의 동선을 보이며 바닥과 연결되고 있다. 건조함이 느껴지는 물성을 기반으로 마치 외부의 거대한 존재가 건물을 관통하듯 내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역동적인 설치로 작품에 남다른 조형관념을 드러냄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관념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35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Santiago villanueva

마드리드 거주,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대학교)

Santiago villanueva 작가는 흘러내리는 액체를 연상케 하는 일관된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5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붉은 모노톤의 안정감과 표면의 광택이 santiago villanueva 작가의 조형관념을 리듬감 있게 연출하고 있고, 두개의 액체 형태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선처럼 연결하여 벽에 고정된 지지대에 느슨하게 걸친 채로 설치하고 있다. 액체 형태의 일관된 조형관념과 하나의 선처럼 구성하여 벽에 느슨하게 걸쳐놓는 방식은 조형에 대한 또 하나의 참신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독창적 텍스트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36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Jan vormann

독일 출생

Jan vormann 작가는 거리의 벽에 발생한 빈 공간을 레고블록을 활용하여 원래의 견고함을 복구시키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6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벽의 빈틈을 다채로운 색의 리듬을 드러내는 레고 블록을 활용하여 일종의 보수공사를 보여주고 있다. 유희의 도구인 레고를 선택하여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것과 갤러리의 질서정연한 공간이 아닌 거리의 자유분방하고 낯선 장소에 관심을 가진 점이 그가 조형에 대한 유니크한 조형관념을 보여줄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들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공공미술의 다양성에도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IZart**

글.  
오민수 작가 홍익대학교 동양화 박사 수료  
dat1127@naver.com

## 작가의 심상을 담은 '선(線)' 사군자

현대적 드로잉의 개념은 작가 주관의 내면세계로부터 표출된 최초의 창조행위와 창조물 전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드로잉에 대한 해석은 동양의 '선묘' 즉 서예나 문인화의 붓놀림에서 보이는 작가의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선의 예술로 대표되는 동양의 회화는 오래전부터 작가의 심상으로부터 즉흥적인 붓놀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창작과정 속에 여러 가지 미학적 가치관과 창작 심리에 관한 미술 이론들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 대상의 정신적인 합일의 과정을 통하여 무작위적인 일회(一回)의 성립을 이루는 동양의 선묘 예술은 현대 드로잉의 해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동양의 선은 곧 자연의 선

동양의 회화는 고도로 심화 발전된 선적 표현 양식의 면모를 보여주고, 붓으로 그린 필선은 회화사상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으뜸의 표현 수단으로 하여 그 가치를 높여왔다. 그리하여 동양에서는 선의 유희적 미감을 추구하고 그것이 또한 감상의 한 기준이 되어왔다. 이러한 선적 표현은 동양회화의 근저에 내포되어 있는 동양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동양의 사상은 자연관(自然觀)에 두고 있다. 이는 곧 동양회화의 선도 그 자연관(自然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양의 선은 곧 자연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강, 들과 같은 자연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흐르고 있는 자연스러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사상의 본질성은 세계를 '변화'의 개념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변화의 순환성의 원리가 '도' 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역동적인 우주관은 또한 '기'의 세계를 뜻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상은 화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른바 '기운론'이 그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기의 리듬은 동양회화의 특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기도 하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그저 빈 공간이나 Space가 아닌 무한한 공간으로 연결되는 즉 우주와 연결되는 장이다. 요컨대 유, 무를 일원론적으로 보는 데서 여백의 미학이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동양회화의 드로잉적인 특성은 기의 리듬, 즉 동양적 우주관의 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여 동양회화의 가장 큰 특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 문인화 중 으뜸은 산수화

동양회화에서 '선(線)'의 미학을 볼 수 있는 장르로 문인화를 들 수 있다. 문인화는 문인들의 교양생활로 그려낸 격조를 중시하는 그림을 일컫는다. 문인화는 중국 북송시대에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후기 동기창일파에 의해 남북종화론이 나오면서 중국의 회화에서 주로 화원과 직업 화가들의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 치밀한 구도, 화려한 색채의 그림을 북종화, 문인화가들의 수묵화를 남종화라 불렀다.

동기창에 의해 신분으로 그림의 성격을 구분 짓게 되자 남종화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북종화로 분류된 화가들도 남종화의 양식을 따르게 되어 마침내 직업 화가들조차 양식적으로 모두 문인화풍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인화는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오랫동안 문인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산수화였다. 산수화는 도가사상의 영향으로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고자했던 문인사대부들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특히 겸재 정선은 중국의 산수에서 우리의 산수로 눈을 돌려 실제 경치 그대로를 표현한 진경산수를 창시하여 조선화단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문인화가들은 산수화 외에도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화, 장수와 소망을 상징하는 영모초충도, 선비의 지조와 의지를 나타내는 사군자 등도 즐겨 그렸다. 이중에 사군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군자란 동양화사에서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을 말한다. 사군자란 말은 본래 회화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니고 인물을 가리킨 말이다. 전국시대에 맹상군, 평원군, 춘신군, 신능군 등 뜻이 높은 인물 네 사람을 골라서 그들이 덕망을 높이 받들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다. 회화에서 이 말이 쓰이게 된 것은 매난국죽이 고결하고 지조 높은 기개가 있다고 하여 앞서 말한 인물들의 이름을 모방한데 연유한다. 옛부터 군자에 대한 인식은 그 신분성보다는 고매한 품성에 의한 인격적 가치로서 존경되었기 때문에 사군자를 그릴 때도 대상물의 외형보다 그 자연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시되었다.

매화는 설한풍속에서 맑은 향기와 함께 봄을 제일 먼저 알리며 피는 꽃이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피우는 마음을 나타낸다.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듯한 매화도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으면 밖에 나서지 않아도 다가온 봄을 느끼게 되니, 옛 사람들의 멋이란 이런 것이겠거니 조금쯤은 가능해 볼 수 있다.

1 <홍매도대련> 조희룡, 조선 19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각 127×30.2cm, 개인소장



난초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은은한 향기를 퍼뜨린다.

난초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는데, 특히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시에서는 충절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공자의 가르침 중에는 군자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이 그림에 붙여진 '부작란도(不作蘭圖)' 혹은 '불이선란도'라는 제목은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줄을 바꾸며 써내려간 김정희의 제시(題詩)에서 연유한다.

2 <부작란도> 김정희(조선, 1786~1856), 조선후기 19세기, 종이에 수묵, 54.9×30.6cm, 개인소장



국화는 매화·난초·대나무와 함께 일찍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지칭되어왔다. 뭇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차가워진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홀로 피는 국화의 모습에서 우리의 선인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 그림은 강세황의 <표암화첩>에 실린 사군자 그림 가운데 하나로 국화를 그린 것이다. 남종문인화풍의 부드러우면서도 서예 글씨처럼 필획이 살아 있는 붓으로 묘사한 깔끔하고 담백한 화풍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화풍은 당대와 후대의 문인 및 직업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3 <표암화첩\_국화> 강세황(조선, 1713~1791), 1784년 제작, 종이에 수묵, 22.5×33.3cm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는 등 그 생태적 특성이 모두 고결한 군자의 인품을 닮았다. 탄은의 풍죽도는 거친 바위틈에 부리 내린 대나무 네 그루가 휘몰아치는 강풍을 맞고 있다. 뒤쪽 세 그루의 대나무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 요동치지만, 전면 한복판에 자리한 대나무는 덧없만 나부낄 뿐 튼실한 줄기는 탄력 있게 휘어지면 바람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고통스럽게 견디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BIZart

4 <풍죽도> 이정 견본수묵 127.5×71.5cm 간송미술관 소장



클.  
아트편집팀  
artbrunch@naver.com

Amedeo Modigliani & Jeane Hebuterne

# 모딜리아니 생의 마지막 연인, 잔느



1\_ 모딜리아니와 잔느



2\_ 잔느의 초상화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예술가의 뮤즈를 장식한다면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와 그의 연인 잔느 에뷔테른(Jeane Hebuterne 1898~1920)을 넣고 싶다. 모딜리아니가 죽자 이틀 뒤 곧바로 그를 따라 몸을 던졌던 비련의 연인 잔느. 당시 그녀의 나이는 22살이었다.

잔느는 부유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화가를 꿈꾸었던 잔느는 당시 가부장적인 여성관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 파격적인 셀프 누드화를 선보이면서 파리 화단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반면 그녀보다 14살 연상인 모딜리아니는 전도유망한 작가였지만 냉담한 파리의 미술시장에 절망하며 술과 마약에 취해 살던 시절이었다. 그들이 운명적으로 만난 시점은 모딜리아니가 죽기 3년 전인 1917년. 큰 눈에 수려한 외모를 지녔던 모딜리아니에게는 앞다퉈 모델을 서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지만 그녀를 처음 본 그는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달라'고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된다.

잔느는 그의 작업실에서 연인이자 모델로 행복한 한 때를 보낸다. 추운 겨울 장작을 살 돈조차 없을 만큼 지독한 가난과 동거했지만 모딜리아니는 씬없이 작업을 했고 잔느는 추위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모델 역할을 했다. 상반신을 수건으로 살짝 가린 채 누군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잔느의 초상화 작품에는 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오롯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둘 사이에 마침내 첫 딸이 태어난다. 모딜리아니는 그 당시 아이들과 소녀의 작품을 주로 그릴 정도로 인생 최고의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난뱅이 화가인 모딜리아니가 꼴보기 싫었던 잔느의 부모는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모딜리아니는 잔느를 보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서 한참동안을 서성이다 돌아가곤 했다.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19년 두 번째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딜리아니는 개인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그의 누드작품들이 '풍기문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시는 오픈 몇 시간만에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병마와 싸우던 모딜리아니는 1920년 1월 파리 자선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가족은 둘의 사후 10년이 지나서야 잔느를 그녀의 소원대로 모딜리아니의 곁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당대 피카소와 종종 비교되기도 했던 모딜리아니는 사후에서야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현재 두 사람의 묘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1884년 7월 12일 리보르노(이탈리아)생. 1920년 1월 24일 파리에서 죽다. 영광을 차지하려는 순간에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

잔느 에뷔테른. 1898년 4월 6일생. 1920년 1월 26일 파리에서 죽다. 모딜리아니에게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반려. **BIZart**



##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트 치즈 플레이트’를 선물하세요



구 성: 치즈플레이트 + 나이프  
 재 질: 코르크보드 위에 도자기 타일  
 사이즈: 240x200x15mm (가로\*세로\*높이)  
 포 장: 종이박스  
 가 격: 35,000원

### Cheese Plate

치즈 플레이트는 국내 유명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아트소품입니다. 와인과 함께 치즈나 버터 등 가벼운 안주를 올려 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친환경 콜크 보드와 1300도에서 구운 도자기 타일로 제작이 돼 내구성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방에 걸어 놓고 그림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작품검색 \_ [www.artbrunch.co.kr](http://www.artbrunch.co.kr)

구매문의 \_ 02)396-8654~5 메일\_ [artbrunch@naver.com](mailto:artbrunch@naver.com)

주 소 \_ 서울시 종로구 평창31길 8 2층(가나아트센터 사이길 위치)

그림 컬렉션의 시작

**아트브런치**  
[artbrunch.co.kr](http://artbrunch.co.kr)